

한·중·일·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머리 맞댄다

4개국 해양쓰레기 관리 워크숍

한중일 환경분야 최고위급 회의
어업 쓰레기 감소 성과 등 공유
해운대 해변서 정화활동도 실시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러 4개국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까지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2018년 NOWPAP-TEMM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관련 NGO 등 내·외국인 60여 명이 참석한다.

NOWPAP(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은 유엔환경계획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난 5월 2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모두모아 봉사대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해온 지역협력프로그램이다.

TEMM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로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1099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환경분야 최고위

급 회의이다.

이번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가 함께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의

해양쓰레기 관련 실무자 회의와 연계해 열리고 있다.

첫 날인 4일에는 한·중·일·러 각국의 해양쓰레기 관리현황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2008년부터 실시해 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 등 저감정책을 통해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감소한 성과 등을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주간(5월 28일~6월 5일)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워크숍 참석자, 학생, NGO 등이 참여하는 연안정화활동을 해운대 해변 미포선착장 인근에서 실시한다. 정화활동 시 물통(텀블러)을 배포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안정화활동 이후 5일 저녁부터 6일 오전까지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해양쓰레기 지역협력계획(RAP MALL: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연락관 회의가 진행되며, NOWPAP 사무국 및 지역활동센터의 현황보고, '해양쓰레기 지구 파트너십' 발전계획 이행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묘인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상 해양쓰레기 문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관리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과 해수부,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산업부, 국가클러스터 육성사업 본격 추진

시·도별 자체설계 청사진 제시

지역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진행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공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대전 선사인호텔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단, 대학 등과 공간적 연계를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대위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국가균

<국가혁신 클러스터 개념도>



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14개 시·도는 공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혁신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구와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등 지역에서 자체 설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정책·입지·투자·연구개발(R

&D)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활용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후 2차, 3차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수도권 못지않은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나침반이 되는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지역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농식품부, 韓-필리핀 농업협력 확대 MOU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필리핀 농업부 엠마누엘 피놀(Emmanuel Pinol) 장관과 양국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민간-공공부문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필리핀 KOPIA센터와 농식품부의 농업 협력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이 우수한 농업 기술을 전수할 것에 대한 필리핀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이번 MOU를 바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과 엠마누엘 피놀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필리핀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설치되는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정례적인 교류와 협력 채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해수부, 국제인증 취득사업 47개업체 선정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상 업체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한다. 또 중소 업체의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에는 89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등 관련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인증(ASC, MSC-COC 등), 친환경 인증(USDA-NOP, Organic EU 등), 품질규격 인증(FSSC22000, SQF 등), 할랄인증, 코셔인증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증을 중심으로 최종

47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업체에는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인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고비용과 높은 기준으로 취득이 어려웠던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인증'을 지원하게 돼 빠르면 연내에 국내 1호 ASC 인증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 보조기관인 (사)한국수산회와 함께 국제인증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출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북적이는 '소비재 수출대전'

4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서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와 해외바이어들이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챙긴다

고용노동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긴 시간 앉지 못해 즉부 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이달 중 47개 지방 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 시설 설치' 캠페인을 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6개 지방청 주관하에 유통업체 관

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소개, 사업장별 모범 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 등을 할 예정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 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 등도 제작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한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한 판매직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방법도 수록된다.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 캠페인 건강 가이드 제작, 백화점에 보급

노동부는 오는 9~10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한 건강보호 조치를 제재로 하고 있는 지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 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장마 대비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

농식품부, 초동대응·복구 등 5개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한 '여름철 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장마 이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몇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초동대응, 재

해복구, 식량·원예, 축산, 수리시설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해 기상상황을 상시점검할 예정이다.

또 태풍 및 집중 호우시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현재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7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이달 말까지 조기 완공해 침수피해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